



필름 수급동향

Supply and Demand of OPP, CPP, PET and Nylon Film

1. OPP 필름

국내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식품업체, 합지, 섬유업체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포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OPP 시장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필름 업체들의 판매량이 작년보다 더 감소했으며 저가의 중국산 필름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악화로 필름 업계는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OPP 필름 업계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해외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돼 있는 OPP 생산업체는 대림산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율촌화학(주),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있다.

업체별로 OPP 필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림산업(주)은 인쇄용, 포장용, 합지용, 라벨

용, 테이프용, 기타 고기능성 필름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2개 라인을 보유 25,000톤의 생산 톨파로 수출 1,000톤, 내수 15,000톤의 생산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공급량이 1,000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화학공업(주)은 업계 최대의 설비를 자랑하며 5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대현공장에 OPP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 삼영화학은 전체 톨파 30,000톤에서 수출 8,000톤, 내수 14,000톤을 생산했다.

2003년에 비해 공급량이 5,000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필름 레진업체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삼영화학공업측은 필름 수요의 정체 속에 중국 등 제3시장에서 들어오는 저가 OPP 필름으로 인해 포장업체들의 생산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율촌화학(주)은 1985년 필름 1공장 준공 및 OPP 필름 제조 1호기를 가동시킨 이래 현재 3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4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3,600톤, 자체소비 7,200톤, 내수

[표 1] O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능력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대림산업(주) ✓ | 2 | 25,000 | 1,000 | 15,000 |
| 삼영화학공업(주) ✓ | 5 | 30,000 | 8,000 | 14,000 |
| 울촌화학(주) ✓ | 3 | 24,000 | 3,600 | 13,200 (자기소모 7,200) |
| (주)화승 인더스트리 ✓ | 3 | 30,000 | 12,107 | 16,305 |

13,200톤을 생산했다.

울촌화학의 OPP 필름은 주로 인쇄용으로 전체의 4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에 비해 수출이 20% 증가를 보였다.

한편 울촌화학은 다가오는 12월에 CPP 라인 신설로 OPP 필름 생산외에 CPP 필름 생산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3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12,107톤, 내수 16,305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작은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주)화승인더스트리의 OPP 필름은 합지용으로 전체의 39%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려운 OPP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판매확대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

2. CPP 필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삼민화학공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유상공업(주), (주)성일화학을 중심으로 2004년도 CPP 시장을 알아본 바 업체별 생산 캡파가 대부분 예년에 비해

[표 2] C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능력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삼민화학공업(주) | 2 | 6,000 | 240 | 5,760 |
| 삼영화학공업(주) ✓ | 1 | 450 | 1,000 | 3,600 |
| 유상공업(주) | 3 | 8,400 | 600 | 6,000 |
| (주)성일화학 | 3 | 6,500 | 441 | 4,65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량도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CPP 업계 조사 결과 국내 내수 침체와 해외에서 완제품 및 필름 수입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출 감소로 인한 매출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12월경 울촌화학의 CPP 라인 신설로 인해 동종 업체들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며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삼민화학은 2대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6,000톤의 캡파로 수출 240톤, 내수 5,760톤을 생산했다.

지난 2003년에 비해 생산능력, 공급량이 16.6% 감소한 것이며 삼민화학은 향후 10%대의 성장을 목표를 두고 있다.

삼영화학공업(주)은 BOPP, CPP, OPP 필름 등 포장재용 필름을 주로 생산해 오고 있다.

삼영화학은 1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450톤의 캡파로 수출 1,000톤, 내수 3,600톤을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내수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화학측은 CPP 필름 업체의 신규 라인 증설과 신규업체의 CPP 라인 신설로 인해 경쟁적



인 단가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판매면이나, 수익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식품 포장용 PP 필름, 농업용 PE 필름, 그라비아 인쇄 식품 포장 용기 등을 생산해 오고 있는 성일화학은 전체 3개 라인을 갖추고 6,500톤의 캡파로 수출 441톤, 내수 4,656톤을 생산하면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일화학측은 올해 원료의 인상대비 가격인상이 경쟁심화로 적정수준에 미흡한 점을 지적, 과당경쟁이 동종업체 수익성을 서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공업은 전체 3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03년 대비 27.2% 증가한 8,400톤의 캡파로 수출 600톤, 내수 6,000톤을 생산했다.

유상공업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CPP 필름 생산 둔화를 예상, 앞으로 기능성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어려운 현 시점을 대비할 예정이다.

3. PET 필름

폴리에스터(이하 PET) 필름은 1회용 식품 수요의 증가와 전기·전자용으로 쓰이는 콘덴서용, 전선절연용 등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며 TFT-LCD 발전에 따라 광확산필름 등 정보통신(IT) 등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PET 필름은 지난 2002년 전 세계적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대형업체로 재편되면서 시장경쟁력이 상승, 호황을 맞았다.

2002년 하반기 당시 PET 필름 업계는 식품포장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PET 필름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호전, 국내 최대 PET 필

〔표 3〕 PET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캡파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SKC(주) | 13 | 90,000 | 34,000 | 56,000 |
| 도레이세한(주) | 8 | 92,000 | 36,800 | 59,200 |
| (주)코오롱 | 7 | 76,000 | 36,000 | 38,000 |
| (주)화승인더스트리 | 1 | 15,000 | 6,500 | 85,000 |
| (주)효성 | 1 | 15,000 | 8,000 | 7,000 |

름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KC가 페트병의 라벨에 쓰이는 열수축필름과 TFT-LCD용 광확산필름 등 차별화제품으로 공략하면서 9.4%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을 비롯, 도레이세한, 코오롱도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PET 필름의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SKC(주)는 1976년 국내 자체기술로 PET 필름을 생산했으며 1999년 미국 조지아 공장 준공, 현재 전세계 4위 국내 1위의 PET 필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SKC는 전기전자용, 포장용, 산업용의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기용 및 콘덴서, TTR로 40%, 포장용 30%, 산업용 30% 가량을 생산한다. 특히 연포장용의 경우 커피믹스 20%, 제과/스낵용 35%, R/P 15%, 생활용품 10%, 기타 20%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다.

(주)SKC는 지난해 9월 중국 우지양(吳江)시에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등에 사용되는 PET 필름 가공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중국 광저우(廣州)와 타이완 동유럽 중남미 등에도 정보기술(IT)용 PET 필름 가공 공장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국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SKC가 글로벌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PET 필름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타이완의 경쟁업체들이 현지화 전략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PET 필름 생산업체는 현재까지 특별한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2004년 말부터 증설라인이 가동됨으로써 2005년에는 해외시장 수급상황(현재 공급 tight)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SKC의 경우 포장고급화·친환경 추세에 발맞춰 신제품들을 계속 개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Twist Film, 포장용 공압출 Matte Film, Embossible Film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현재도 추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ET 필름의 경우 용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Magnetic용 필름은 감소하는 반면, 산업용 및 포장용의 경우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포장용 PET 필름의 경우 연간 5% 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산업용의 경우도 3~4%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PET 필름기술을 개발, 생산하기 시작, 산업용 필름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SKC는 PET 필름 생산에 박차를 가해 고부가 제품개발과 글로벌 전략으로 승부하는 동시에 동시에 전자소재 사업 등 첨단사업에 장기투자해 미래 주종사업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 2월 일본 도레이가 경북 구미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해 정보기술(IT) 소재와 고기능 수지사업 등 신규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힘에 따

라 도레이새한 구미 1공장은 폴리에스테르 원사, 페트(PET)필름, PP 부직포 등을 주로 생산하게 됐다.

PET 필름 8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도레이새한(주)은 연간 92,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출 36,800톤, 내수 59,200톤을 생산했으며, 포장용 24%, 자기용 40%, 그래팩용 28%, 전기전자 6%로 이용되고 있다.

1985년 PET 필름 생산을 가동한 (주)코오롱은 2002년 고풍이 보유하고 있던 PET 필름 2개 라인을 인수함에 따라, 2003년을 기준으로 총 7개 라인의 PET 필름을 보유하고 있으며, 76,000톤을 생산했다.

수출과 내수량은 36,000톤과 38,000톤으로 균형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포장용으로 35%, 산업용으로 40%로 이용되고 있다.

(주)코오롱 관계자는 "PET 필름업계가 전세제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할뿐 아니라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PET 필름 가격 상승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자소재로 이용되는 산업용도의 고부가 필름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1997년 1개 라인의 PET 필름 생산을 시작으로 연간 1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포장용으로는 40%가량을, 증착용으로 25%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 6,500톤, 내수 8,000톤으로 내수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화승인더스트리와 함께 (주)효성 역시 연간 1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효성의 경우 수출물량이 8,000톤으로 내수 7,000톤보다 수출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전



체 물량의 45%를 포장용으로, 나머지 55%가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효성 관계자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시장이 급감하고 있지만 PET 필름 포장용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원료가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 문제가 업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PET 필름업계의 경우 선발사들은 IT용 소재로 차별화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후발사들의 경우 포장용 시장에서 원가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PET 필름 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일본 및 미국 경기 상승,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꾸준한 수요증가)로 생산, 판매에 Full 생산·Full 판매를 하고 있다.

국내판매의 경우도 2004년 상반기 타소재 대체(Cellophane 등) 및 포장고급화 추세로 인하여 경기침체 임에도 불구하고 PET 필름 사용량은 3~4%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올해 하반기에도 PET 필름 시장은 포장고급화 추세 및 수입제품의 대체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Nylon 필름

햄과 게맛살, 과자 포장재 등에 쓰이는 Nylon 필름은 지난해 시장규모가 600억원대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Nylon 필름 생산을 가동한 이후, 97년 PET 및 Nylon 필름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표 4) Nylon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캡파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주)코오롱 | 2 | 7,000 | 4,000 | 3,000 |
| (주)효성 | 1 | 2,800 | 600 | 2,200 |
| 하니웰코리아 | 2 | 8,500 | 6,300 | 2,200 |

법을 설립한 (주)코오롱은 2003년 기준, Nylon 필름 2개 라인을 보유, 수출 4,000톤, 내수 3,000톤의 총 7,000톤을 생산했다.

Nylon 필름 업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된데다, 추가 인상이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원료가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

2005년 가동을 예정으로 (주)코오롱이 계획하고 있는 Nylon 필름 설비 증설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對중국 수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코오롱에서 충남 당진 고향 Nylon 필름공장을 매입한 하니웰코리아는 최근 제2생산라인을 완공하면서 총 2개 라인을 보유, 국내 1위의 Nylon 필름 생산업체로 부상했다.

총 250억원을 투자한 설비 증설로 하니웰코리아 당진공장 Nylon 필름 생산규 규모는 지난해 연간 3,000톤에서 8,500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출 6,300톤, 내수 2,200톤을 기록했다.

하니웰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수요의 Nylon 필름사용량은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수출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년대비 물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에 대한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경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웰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 국내 경기에 따라 다소 증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니웰코리아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Nylon 필름보다 약 30% 얇은 초박막 필름을 생산해 틈새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당진 Nylon 필름공장을 미국 중남미 유럽 중국 등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소싱 기지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미국 포츠빌 Nylon 필름 공장 생산량은 연간 1만톤 규모로 당진공장 생산량까지 포함하면 2만2,000톤으로 늘어나 하니웰이 세계 시장

에서 4위 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Nylon 필름의 7% 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주)효성은 현재 1개 라인을 보유, 연간 2,8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내수 2,200톤, 수출 600톤을 생산했다.

현재 구미 지역 1개 라인과 중국 1개 라인의 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며, 증설라인의 경우 연간 3,500톤의 캡파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효성관계자는 “경기부진으로 Nylon 필름 업계가 축소되고 있는데다가 원료가격 급등으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대규모 증설로 하반기 이후 Nylon 필름 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광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

E-mail : kopac@chollian.net